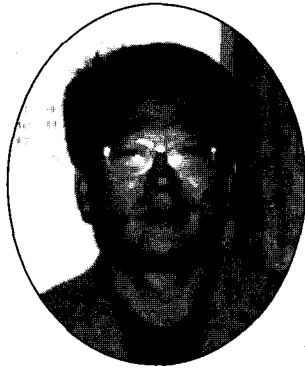


8월의 질병 관리



유 일 준 수의사
유일동물병원장

8월은 내년 사슴농사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이다.

종록으로 사용해야 할 숫사슴의 종합적인 건강관리, 다음달부터 시작될 암사슴의 임신을 위한 영양관리, 봄부터 자라온 새끼사슴의 젖떼기, 번식철의 숫사슴 안전관리를 위한 사슴장 정비가 필수적인 때이다. 또한 8월부터 발굽질병, 주혈원충성 질병인 바베시아증이나 타일레리아증(일명 파이로)이 시작되어 가을까지 이어지는 시기다.

◇ 숫사슴 돌보기

절각 후 다시 자란 재생녹용(이듬녹용이라고도 함)은 그 크기가 커서 발정기에 다른 사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다소 서둘러서 제거해야만 한다. 재생녹용은 본래 자랐던 녹용보다 빨리 각질화되므로 좀 더 키우려고 욕심을 부리다보면 거의 각질화되어 버림으로써 녹용으로서의 가

치도 없을 뿐 아니라 보기도 흉하다. 각질화된 재생녹용은 사슴우리에 심대한 손상을 일으켜 파손이 가속화될 뿐 아니라, 하나의 우리에 여러마리의 숫사슴을 사육하는 형태에서는 골질화된 녹각을 뽕족하게 갈아서 다

른 사슴을 공격함으로써 피하내상, 피부질창은 물론, 갈비뼈 골절, 흉복부체벽 천공을 가져와 상대방을 폐사케 할 수도 있다.

또한 골질화된 재생녹각을 가진 사슴과 없는 사슴은 서열의 변화를 초래하여 기존의 힘의 균형이 깨어짐으로 해서 다른 해보다 더 심각한 싸움을 하게 되므로 발굽질병도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체력과 체중의 손실이 이어지고, 낙각기에는 낙각이 지연되기도 한다. 다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허약한 숫사슴의 골질화된 녹각은 절단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각질화된 재생 녹각을 무기삼아 다른 사슴에게 대항하는데 도움이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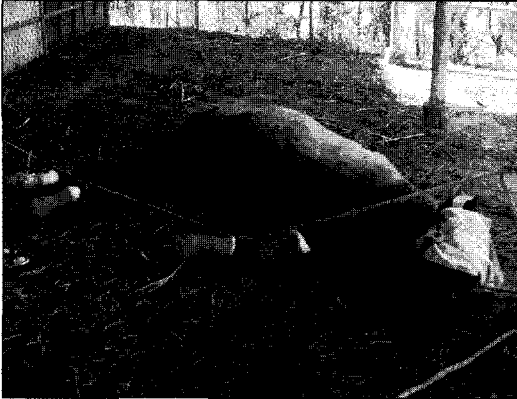
▲ 종복으로 사용될 숫사슴은 머리 발굽치료를 실시해 주어야 한다

체력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녹각을 가진 숫사슴이라도 우리에게 한아름쯤되는 통나무를 박아 놓으면 그 통나무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사슴우리의 파손도 막을 수 있어 좋다.

종복으로 사용될 숫사슴은 발굽질병, 포피염은 미리 치료해주고 구충제는 교배 시작전 20일 전에 투여하는 것이 정충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부제병이라 불리는 발굽질환(제저괴양, 제엽염, 제침괴양, 지간부란, 지간부상염)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철저히 치료하지 않으면 교배기에 가중되는 교배스트레스에 의하여 발굽질환이 재발되거나 악화되어 심한 경우 교배장

애를 일으키거나 교배가 불가능하게 되어 그로 인해 귀중한 우수종복이 폐복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도 하며 녹용생산량이 격감되기도 한다.

발굽질환치료의 10대 원칙은 1) 원인을 제거한다. 2) 상해부위를 자주, 그리고 철저히 소독한다. 3) 상해 받은 부위를 깎아주되 과잉삭제는 금물이며, 4) 건조시키고, 5) 혈액순환 장애가 없도록 붕대를 감아주어 환부를 보호하고, 6) 지속성인 항생제, 소염제, 해열진통제를 주사해주고, 7) 유산동, 과망간산카리, 테라마이신을 물에 희석하여 발굽을 담가주고, 8) 비타민과 구리, 철, 코발트, 몰리브덴 등이 함유된 미량광물질을 투여하며, 9) 사육장소는 안락하게 해주어



▲ 네발 모두 부제병에 걸려 뉴캐스트로 고정시켜 놓은 모습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욕창, 마비, 염증 전이 등의 방지, 10) 스트레스 방지이다.

최근에는 부제병치료를 위한 침지(발굽 담금) 기구가 시판되고 있으나 가격이 비싼 것이 흠이다.

◇ 암사슴의 관리

금년도에 자육을 분만한 어미사슴에게는 농후사료의 양을 높여주고 수태에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과 미량광물질(통상 비타민, 미네랄믹스추어라 함)의 급여가 필수적이다. 어미사슴이 너무 마르면 발정이 지연되어 다음해에 늦은 분만이 이루어 질 수 있고 또는 수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임신이 지속되지 못하고 유산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첫임신이 이루어지는 생후 2년생의 암사슴의 경우에는 10월말까지 곡물사료(배합사료)와 조사료를 무제한 급여를 하는 것도 무방하나 갑자기 무제한

급여를 하면 설사, 고창증 등의 소화기 질병이 발생되므로 서서히 사료급여량을 증량시켜 사료적응이 되도록 훈련한 후 무제한 급여를 시작해야 한다.

무제한 급여훈련은 매일 일정량의 먹이를 증량시켜 주면 대개 15일 전후에 적응된다. 금년도에 새끼사슴을 분만하지 아니한 어미사슴은 사슴전문수의사로 하여금 내진(직장검사) 또는 초음파 검사로 내부생식기(난소, 자궁, 자궁경관, 질)의 이상여부를 진단 받아야 한다. 각별히 유념해야 할 또 하나는 난산이 발생한 어미사슴은 필수적으로 내진하여 임신가능여부, 영구불임여부, 지방괴사증 여부를 진단 받아 불임사슴을 색출해내서, 검사없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 해를 분만없이 사료만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년도에 새끼사슴을 분만하지 않았으면서도 과잉 비만인 암사슴은 즉시 분리 사육하며 배합사료 급여량을 대폭 줄이고 주로 조사료 위주로 사육하여 적절한 몸매를 만들어야 한다.

◇ 새끼사슴(자육)의 젖떼기

5월말 이후 6월 초순까지 분만한 자육은 8월20일 경에 어미로부터 젖을 떼어야 새끼사슴 자신도 성장이 순조롭고 어미사슴도 적기에 임신할 수 있다. 늦은 젖떼기는 새끼사슴에게 사료적응이 늦어져 성장이 지연될 수도 있다. 또한 젖떼기 10일 전후에 필수적으로 새끼사슴에게 구충제가 투여되어야 한다. 새끼가 태어난 지 20일이 되면 어린

송아지용 사료나 칼프스타터같은 사료를 이용하여 모자라는 어미젖을 보충하며 사료채식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육만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먹이, 조사료, 물을 먹을 수 있는 공간 즉, 자육관리실이 필수적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늦게 태어난 새끼사슴은 불가피하더라도 생후 50일령까지는 포유를 시켜야 하고, 10월10일전까지는 이유 되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해에는 어미사슴이 너무 늦게 분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늦게 분만된 자육의 수가 많을 때에는 별도의 우리에 자육만을 모아 분유를 급여하는 등의 특별관리를 하는 것도 요령이다.

젖떼기는 동시에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새끼사슴에게도 스트레스가 적게 가해지고 어미사슴에게도 유리하다. 젖떼는 시기가 늦어지면 통상적으로 난소의 황체가 오래 존재하여 수태가 늦어질 수 있으며 한번 늦게 분만된 어미사슴은 다음 해에도 늦은 분만을 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각별한 대책이 요망된다. 늦게 분만된 새끼사슴은 성장발육도 부진하기 일쑤여서 암컷의 경우 2세 때에 수태가 어렵고 숫사슴의 경우 녹용생산이 저하되는 것이 보통인데... 태어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

◇ 일사병과 열사병

사슴은 야생성이 강한 동물이지만 추위에는 견디는 힘이 강하나 더위에는 약한 편이다. 사슴이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걸리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사육되기 때문이다.

일사병은 그들이 없거나 적은 사육장에서 과량의 햇빛을 받음으로써 체온조절의 기능이 상실되어 발생하나 음수만이라도 제대로 급여하면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열사병은 고온다습, 통풍불량이거나 흥분으로 인해 체온조절 중추가 장애를 받아 발생하는 것이 상례이다. 일사병과 열사병은 그 증상이 비슷한데, 비틀거리거나 심하게 헐떡거리고 침을 흘리며 흥분하는 공통점이 있고 치료방법도 거의 동일하여 생리식염수를 꽃사슴 1000ml, 레드 2000ml, 엘크는 3000ml 이상 정맥주사하며 해열제와 강심제, 간장약을 투여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물이장에서 가장 흥분이 안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부득이 마취를 할 경우는 마취제의 양을 줄여 정상량의 60~70% 내외를 사용하여 마취사고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치료 후에는 지하수 등으로 복부를 제외한 전신에 물을 뿌린 후 대형선풍기로 바람을 쐬게 해주면 회복이 빠르다.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발생한 사슴은 재발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시원하고 신선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해주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쉬게 해 주어야 한다. 일사병과 열사병의 치료후 예후는 대체로 양호하다.

◇ 바베시아와 타일레리아(일명 파이로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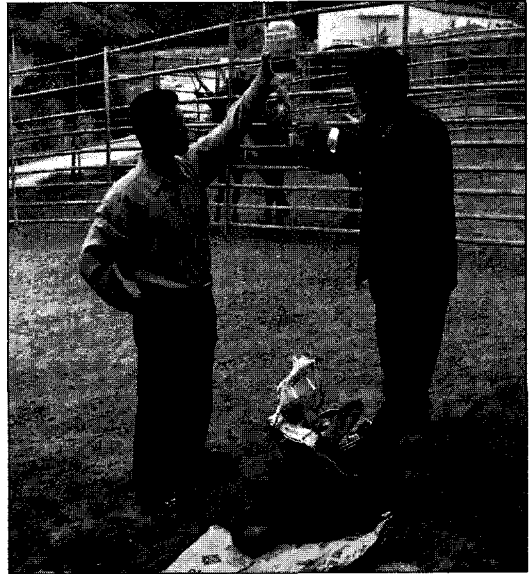
진드기가 흡혈할 때 진드기의 입으로부터

터 주혈원충인 바베시아나 타일레리아가 사슴의 몸속으로 들어가 적혈구내에 기생함으로써 빈혈을 일으켜 유산, 기립장애 또는 불능, 식욕부진, 운동기피, 침을 흘리고 침울한 모습으로 귀를 늘어뜨리며, 커피색 또는 회갈색의 오줌을 누는 것이 특징이다. 새로 분만된 어린 사슴이나 새로 입식한 사슴에서 주로 발생되는데 그 원인은 같은 장소에서 오래 생활한 사슴은 내성이 있거나 잠복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장소에서 오래 사육된 사슴이라도 체력이 약화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발병한다.

타일레리아나 바베시아에 걸린 사슴은 대부분 살이 썩어 있고 평소에는 매우 건강해 보인다.

어떤 이는 바베시아를 대형 파이로라 하며 증상은 타일레리아보다 심각하나 치료를 하면 빨리 호전되는게 보통이다. 치료방법은 파마킹, 프리마킹, 베레닐 중 택일하고 테라마이신과 철분주사, 간장약을 주사하고 수혈을 하면 이상적인데 혈액은 해파린을 첨가하여 응고되지 않게 처리한 후 꽃사슴은 300ml, 레드디어 700ml, 엘크는 1500ml 이상을 수혈하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지난봄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평균 3%정도의 사슴에서 바베시아나 타일레리아에 걸린 사슴에서 채혈을 해보면 마치 피에 물을 탄 것처럼 멀쩡해 보인다.

또한 혈액을 염색한 후 현미경으로 검사해보면 적혈구내에 존재하는 원충을 손쉽게 발견해 낼 수 있다. 최근에는 타일레리아나



▲ 바베시아와 타일레리아 병에 걸린 사슴은 수혈을 실시해 주면 효과적이다

바베시아가 잠복중인 사슴에게서 등애가 흡혈할 때 다른 사슴에게 전염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필자는 최근에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에 왕진하며 바베시아나 타일레리아를 치료한 바 있는데 대개 2회의 왕진으로 만족할만한 치료효과를 거두었다.

진드기에 오염된 사육장은 근본적으로 진드기의 구제가 불가능하나 피메스린제제나 싸이메스린제제를 정기적으로 사슴에게 분무해주면 구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사슴에 관계되는 독초들

사슴은 모든 풀을 먹을 수 있다고는 하나 미나리아제비, 고사리, 봉숭아꽃, 까마중,



여귀는 먹여서는 안된다. 또한 어린 수단그라스의 앞에는 청산중독을 생성하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수단그라스(수수와 교잡종 포함)는 최소한 120cm 이상 자란 것을 먹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최근의 진료 경향

7월의 진료는 인후두마비증, 타일레리어나 바베시아, 발굽질환 그리고 비노기계 질환 중 포피폐쇄증의 순이었다.

인후두마비증은 모두 숫사슴에서 발생하였으며 공통적으로는 각관의 지혈대가 늦게 풀린 것이 원인이었다. 증상으로는 눈, 목, 다리에 마비가 나타났으며 먹이를 삼키지 못하고, 입에 거품을 물며 심하게 흥분하는 것만으로도 폐사될 수 있다. 체온상승이 있으나 해열제로 해열이 잘 안되며 초기에 치료하면 그런대로 좋은 효과가 있었으나 치료 시기가 늦은 것은 거의 폐사되었다.

사슴가격의 하락 때문일지는 모르겠으나 필자에게는 파상풍이 났든 인후두마비증이 났든 간에 암사슴은 진료가 의뢰된 것이 없었다. 현재에도 필자의 목장에는 인후두마비증으로 입원하여 치료중인 엘크 3세의 숫사슴이 있다.

타일레리어나 바베시아는 7월 중순 이후 경북지방에서 발견되어 베레닐, 테라마이신, 간장약, 철분을 주사하고 적정량의 수혈을 한 바 100% 회복되었다. 바베시아와 타일레리아는 아마도 8~10월까지 발생될 것이다.

발굽질환은 다른 해보다 제염염의 발생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염염이라 함은 발굽부위 중 피부와 발톱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염증이 생겨 통증으로 인해 질름거리고, 자주 드러누우며, 체중감소, 체력약화, 때로는 패혈증까지 발생하는 발굽질환이다. 그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위장의 산성화, 또는 배합사료의 과식, 구리·코발트 등의 미량광물질의 결핍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염염의 치료는 환부를 소독하고 항생제연고를 환부에 발라주고 썰과제 가루를 도포한 후 유산동과립을 소량 첨가한 다음 두툼하게 거즈를 대고 혈행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의 탄력으로 붕대를 감아준다. 이후 3~5일 간격으로 앞의 발굽질환 치료의 10대 원칙대로 치료한다. 제염염은 방치할 경우 발굽이 빠지거나 그 주위에 염증이 확산되어 심각한 상태에 다다를 수 있으며 때로는 패혈증이 되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제염염 치료시 마취를 조심하여 마취사고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끝으로 독자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양록농가에 알려 드리는 사항은 비타민과 미량광물질 제제가 필자의 경험상 유한양행의 올믹스D가 효과면에서 우수했으나 사슴은 냄새에 예민하여 비타민 냄새 등으로 인해 사슴들이 섭취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투여시에는 아주 적은 소량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양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거듭 오해 없기 바란다. **안드영**

〈필자 연락처 : 011-423-5297〉